

안전 사고 강력 대응 '총력'

전북도, 다중이용 유흥업소 안전관리 단속 실시

전북도는 다중이 자주 이용하는 클럽, 유흥업소 등의 시설물에 대해 12일부터 2주동안 시·군과 합동으로 안전관리 실태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 도심의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2명이 사망하고 2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유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단속대상은 도내에서 술 마시고

춤 음악이 행해지는 다중이용시설로 나이트클럽, 카바레, 스탠드바와 일명 감성주점(클럽형태 영업장) 등이다.

단속방법은 도 도민안전실 민생특발사법경찰팀의 주관하에 시·군 관련부서,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건축, 전기, 가스, 소방, 식품위생분야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시설물에 대한 위요인 발견 등 안전문제 발생시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보

강·철거 등 정비 완료토록 하고 또한 불법건축물을 포함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 및 형사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전에 예고를 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사전에 예고를 하는 이유는 단속실적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래도 위법사항이 발견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에 따라 처리하여 최대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



새만금 신항, 국가 재정사업 전환 확정 1일 전북도청 지방기자실에서는 새만금 신항, 부두규모 확대 및 국가 재정사업 전환 확정과 관련해 길해진 해양수산정책과장이 기자브리핑을 가지고 있다.

전북국제교류센터, 재외동포 청소년교류 전북 초청사업 본격 추진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과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센터장 이영호)가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하고 한국YMCA전국연맹과 전주YMCA가 주관하는 재외동포 청소년교류 전북 초청사업이 7월 31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기념식을 갖고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3박4일간 본격 추진된다.

청소년 교류행사는 15개국(미국, 중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100여명의 재외동포 중고생과 전라북도 중고생 50여명 및 호스데이 학부모 등 총 180여명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 학생들

이 전북도 가정에서 2박을 하며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참가 청소년의 한민족공동체 구현과 더불어 전북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한편, 도내 청소년들에게 국제 청소년 친선교류 기회제공을 통해 글로벌 차세대 리더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에서 협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북으로 유치한 사업이다.

또한, 도내 학교에서의 학습체험과 한국어·한국역사·태권도 강좌수강, 정사초롱 만들기, 한복입기와 같은 전통문화 체험, 한식문화 체험, 전철 창포물 머리감기와 같은 농촌문화 체험, 도내 주요명소 탐방을 실시하고, 2023

새만금 세계 짬버리 대회 홍보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전북도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영호 센터장은 "전북도국제교류센터, 재외동포재단, 한국YMCA전국연맹이 함께하는 협업사업으로, 재외동포 청소년을 전통문화 1번지 전북으로의 초대로 전북의 매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는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더불어 전북 청소년에게도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불법 촬영·유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전북도, 오늘 모항해수욕장서 피서지 성범죄 점검·캠페인 실시

전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늘 부안 모항해수욕장에서 전북지방경찰청과 협업으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성추행 등 피서지 성범죄 합동점검 및 예방 연합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피서지 성범죄 합동점검 및 예방 캠페인은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를 중심으로 전북도, 전북지방경찰청, 부안군, 부안경찰서, 아동·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시설, 학생 등 관계자

90여명이 참여한다.

이날 해수욕장 주변의 공공화장실, 탈의실 등에 대한 불법 촬영카메라 탐지 점검과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불법촬영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성범죄 예방 연합캠페인은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범죄 예방 다짐 선

포식을 시작으로 성범죄 예방 관련 게시물 전시 및 '불법 촬영·유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가 담긴 불법촬영 근절 홍보물 배부와 '우리는 안전지킴이! 성범죄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 가두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성추행이나 불법촬영을 발견하거나 의심이 될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112에 신고하거나 1366 상담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2차 피해 방지가 이루어지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됨을 알릴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방언사전 책자형태 발간... 초청 홈페이지·네이버국어사전 등재

전북도는 2017년과 2018년 2년에 걸친 전북도 방언사전 편찬사업을 마무리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2019년 전북도 방언사전이 책자형태로 발간이 완료됐고 초청 홈페이지 및 네이버에 등재했다.

그동안 사범집필집으로 완성되었던 전라북도 방언사전이 드디어 정식발간본이 출판되었다. 책은 하드케이스

와 분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드케이스에는 전주완판본 이미지가 삽입되어 예스러운 느낌과 베이직색 바탕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형성하여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만들어졌고, 분권은 검은색 가죽양장본 바탕에 금장으로 '전라북도 방언사전'이라는 제목과 전라북도 슬로건 '아름다운 생명산하, 천년전북!' 그리고

전라북도 마크가 디자인되었다.

사전은 부록을 포함하여 총 1118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표제어 개수는 1만1086개이다.

각 표제어 별 구성은 표제어, 원어, 발음, 품사, 활용형, 대응어(표준어), 뜻풀이, 용례, 사용지역, 관련어, 해설로 이루어져 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선관위, 국회의원선거 공정선거지원단 공개 모집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활동 등을 보충할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19명으로 도선관위 및 전주시완산구선관위·익산시선관위는 각 2명, 그 밖에 13개 구·시·

군선관위는 각 1명씩이며, 지원 자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응모가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오는 5일부터 9일까지로 소정의 지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근무를 희망하는 선관위에 직접 방문하

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면접심사를 거친 후 8월 2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은 9월 2일부터 2020년 4월 24일까지 근무한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과 지원서류 양식은 도선관위 홈페이지(<http://j.nrc.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도선관위 지도과(239-2330) 또는 각 구·시·군선관위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진성 기자

8월 전북 곳곳서 체육행사 '풍성'

사격·수마·태권도대회 등 국내·도내대회 다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8월에도 전북 곳곳에서는 다채로운 체육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진다.

1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이달 한달간 도내 곳곳에서 각종 국내대회와 도내대회가 예정 돼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먼저 약 1,000명이 참여하는 제4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사격대회가 1일부터 오는 8일까지 전북 종합사격장에서 진행된다.

이 대회에는 아역배우 박민하가 공기소총 10m 여자 초등부 경기에 출전해 눈길을 끈다.

제36회 대통령기 전국수마대회가 2일 개막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초등태권도대회는 10일부터 14일까지 고창군립체육관에서 펼쳐진다.

황산대첩기념 제4회 이성계장군기 전국남여공도대회는 15일부터 사흘간 남원 황산정에서 열리고, 제35회 대통령기 전국시도탁구대회는 16일부터 22일까지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다. 또 시원한 물살을 가를 제38회 대통령기 전국수영대회가 22일부터 26일까지 전주 완산수영장에서 펼쳐지고, 제1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철인3종선수권대회는 31일부터 이틀간 옹포캠핑장 일원에서 진행된다.

한편, 전국대회와 함께 4개의 도내 대회도 예정 돼 있다.

2019 전라북도 동호인비대회가 3일부터 이틀간 전북비독협회 대극장에서 열리고 전북생태체육테니스대회는 17일부터 18일까지 완주군청 테니스장에서 개최된다.

또한 전라북도지사기 농구대회와 제26회 전라북도지사배 탁구대회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각각 군산 고체육관과 남원춘향골체육관에서 열린다.

최형원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만큼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종 대회가 전북에서 개최 돼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